

#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6년 2월호

통권 제 156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 1월 교우소식

### 새 교우

♣ 천길호씨(61년생)·음미형(60년생)씨, 종로구 평창동 아름B/C마을 을동 101호에 사시는 이들 부부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게 되었다. 천길호씨는 한가람 남신 교회에 소속을 할 예정이며, 구역은 110구역에 속하여 구역장인 민경숙집사와 등록심방을 하였다. 자녀는 대학 1학년인 천아름(딸)과 고등학생인 천바다(아들)가 있다.



♣ 김장훈씨(62년생),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풍림A 101-1501. 천길호씨와 사업의 동료인 김장훈씨는 천길호씨가 전도하여 1월 첫주에 함께 등록하였다. 가족들이 이미 기독교신앙을 갖고 있으나 김장훈씨는 아직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에 새롭게 신앙을 갖기로 하여 안동교회에 오지게 되었다.

♣ 임택씨(62년생) 송파구 삼전동 95-25 201호. 천길호씨와 사업의 동료로서 임택씨는 명성교회에 다니다가 우리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다.

♣ 김형섭씨(80년생), 강동구 상일동 주공A 604-308. 새가족인 천길호씨가 전도하여 함께 등록하게 되었다. 컴퓨터 관계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이다.



♣ 이옥순씨(41년생), 삼청동 35-148 401호에 사시는 이옥순씨는 교회와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시던 초신자이시다. 정정자집사가 이웃을 인도하여 등록하시게 되었다. 두달 전에는 이옥순씨의 아들인 김우섭씨가 온누리교회에 다니다가 등록을 먼저 하였고 이번에는 어머니가 등록을 하셨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기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정현경씨(50년생), 은평구 신사1동 현대2차 111-1708. 정현경씨는 오래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잠시 쉬다가 다시 교

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시던 이경복 집사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다.



♣ 박정희씨(56년생), 성북동 168-281. 박정희씨는 박정희B집사가 인도하였다. 전에 다른 교회에 조금 다닌 적이 있고 이번에 박정희집사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신앙을 갖기로 결심하였다.



♣ 이미옥씨, 소격동 소격A 301. 이미옥씨는 승동교회에 꾸준히 다녔으나 이제 교회를 새롭게 정하게 되었다. 삼청동 테니스회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시던 김종순 집사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같은 회원인 유준자권사와의도 이미 친분을 갖고 있어서 교회가 낯설지 않다고 한다.



♣ 김성숙씨(55년생), 계동 140-68. 김성숙씨는 계동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가회동 성당에 다니셨다. 그러나 약 10년전부터 성당에 다니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 동대문시장의 시장선교회에 참석하여 다니다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 인도자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 교회를 정하여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 신혜영씨(66년생)·최영근씨(65년생),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아) 507-601. 이들 부부는 지난 12월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남편인 최영근씨는 우리 안동교회 출신으로 청년부 시절 이호창집사와 함께 청년부 활동을 하였고, 청년부 회장까지도 맡은 적이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교회 생활에 참여하였다. 이호창집사의 인도로 다시 교회에 오게 되었으며 딸도 우리 교회 중등부에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다.



♣ 황경옥씨(63년생), 종로구 계동 79-9. 황경옥씨는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김학영씨가 인도하였다. 황경옥씨는 김학영씨와 중국에서 같은 대학을 다닌 절친한 친구사이이며, 중국교포이다. 계동에 이사를 와서 안국동의 <세꼬시>라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서 주일은 2주에 한

번씩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 별 세

☞ 故 안효구교우(안일현집사 부친), 1월 8일 별세하여 1월 10일 장례하였다. 장례는 고인이 영세를 받으시고 출석하시던 불광동성당에서 집례하였다.

☞ 故 김동순권사(89세), 은성순권사 시모 1월 29일 별세하여 1월 30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박병욱목사와 조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장례는 고인이 다니시던 성북교회에서 집례하였고, 2월 1일 김포 공원묘지에 모셔졌다.

### 세 례

1월 8일 2부 예배시에 세례 이원희, 입교 김영민

### 축 하

☞ 김도현집사(박상희집사 부군), 진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임용

### 감 사

☞ 장은라 권사 교회 친교실에 현수막 2점을 기증  
☞ 남궁열집사가 독거노인들에게 쌀 360kg을 기증

### 출 국

♣ 이효종장로, 김희진권사, 대학합창단 유럽 7개국 순회연주  
♣ 홍영자권사, 가족방문차 미국 출국

### 출 산

♣ 김수정, 라도삼교우(최묘희집사1녀) 득녀

### 환 자

☞ 서정은교우(민응규집사 부인), 미아동 햇빛 여성병원 403호.

### 이 사

- ♣ 이기주, 김미정집사, 성북구 정릉2동 중앙하이츠 빌 2차 201-105호
- ♣ 정순웅, 조명자집사, 서대문구 홍은3동 현대A 102-1403호
- ♣ 장문자장로, 오정섭집사, 종로구 원서동 135-103
- ♣ 이덕기, 송서라(이병근집사 아들), 서초구 방배4동 869-16

## 은퇴, 추대식

1월 8일 2부 예배시에 은퇴식과 추대식이 있었다. 장로은퇴는 이본장로, 권사은퇴는 김덕순권사, 김정희권사, 서영희권사, 최명애권사가 은퇴하였고, 박종한집사를 명예집사로 추대하였다. 명예권사는 김금희, 김춘식, 조혜자, 김순초, 이치정권사가 추대되었다.

## 제직수련회

2006년도 제직수련회가 1월 18일(수) - 1월 20일(금)에 진행되었다. 첫째날은 수요 성경연구 시간에 특강으로 박병욱 담임목사가 진행하였고, 둘째날에는 제직회 각부서의 국장들이 각 국들의 사업과 봉사자들을 소개하였고, 워킹을 진행하였다. 셋째날에는 저녁식사와 제직회, 친목회로 진행하였다. 저녁식사는 친교봉사국에서 정성껏 준비하였고, 친교회는 교구지원국에서 준비하였다. 친교부장인 배호근 집사가 웃놀이와 친교의 시간을 진행하여 온 제직들이 더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정배집사가 개인적인 후원을 하였는데, 행운권 추첨시에 박영석집사와 장현숙집사가 각각 제주도 여행권을 선물로 받는 행운을 얻기도 하였다.

연일 약 100여명의 제직들이 참여하여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 새로 제직으로 임명된 신입 서리집사는 다음과 같다.

남자 서리집사 : 곽홍섭 김희창 남택권 민용규 윤백영(5명)

여자 서리집사 : 강정녀 김영실 김행미 김혜경B 남은희 박은영 박진령 신지원 유인숙 이명희 장신애 전해란 전숙원 조금선 조성아 주연수 주연정 홍은애 황예상(19명)

##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월 6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횡성군 영광교회 수양관에서 있었다. 주제는 “실크로드 27” 로서 신약성서 워크샷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36명, 교사가 총 23명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신약성경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강의와 특강으로 “미디어와 교육”을 들었다.

그 외에 찬양기도회, 도전 징을 울려라, 성경사문제, 뽕망치 노래방 등을 했고, 수양관에 있는 허브농장을 견학하여 허브비누 만들기를 하고, 눈썰매를 탔다. 주일에는 주일예배를 드리며 수련회를 마무리 하였다. 특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새로운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등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중에 있다.

## 청년부 겨울 수련회

청년부 겨울 수련회는 1월 19(목) - 21(토)에 충남 서천에 있는 백송관 집사님택에서 있었다. 총 33명의 청년과 교사로는 안일현집사, 임동휘집사가 함께 하였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대다수의 청년부가 참석하여 어느해 보다도 참석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부에서 갓 올라온 청년부 새내기들이 모두 참석하여 더욱 활기차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번 수련회는 무엇보다도 기도와 찬양을 중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수련회가 되었다. 그리하여 영성이 느껴지는 수련회, 새로하게 될 G12 셀목회 특강을 이성철 목사가 2회에 걸쳐 진행하여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또한 수련회장소의 주변 지역을 탐방하고, 부둣가를 여행하며, 대나무 삼겹

살 파티를 하며 서로간에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다.

올해 청년부를 섬길 새로운 임원들은 회장에 박민아, 총무 김영빈, 회계 남궁실, 서기 김승희, 리더에 서동진이며, 지도목사는 이성철, 부장은 이종서, 찬양팀 단장은 이정배, 교사는 김종명집사, 안일현집사, 임동휘집사 등이다.

## 새시대 목회 연구원 강좌

16일 새시대 목회연구원 140회 월례강좌가 있었다. 올해부터 “안동교회 농촌목회 연구원”에서 “안동교회 새시대 목회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는 목회자를 위한 강좌를 농촌목회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장을 넓히고, 대상을 확대하여 새시대의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로 바꾼 것이다. 이번 강의는 김동선교수가 “개신교 선교의 역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김동선 교수는 호남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 남성합창단 창단

남성합창단 발단식이 1월 8일 오후 1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있었다. 그동안 토요일 1부예배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모였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주일 3부 예배에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어 청년을 중심으로 한 토요일 1부예배 찬양대가 해체되었다. 따라서 1부예배에 찬양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남성합창단이 창단되었다. 1부예배 찬양은 한솔찬양대, 한소망찬양대, 남성합창단, 독창자 등이 월 1회씩 맡아서 찬양을 하게 되었다.

연습은 매월 선교회 월례회 후에 연습을 하고 넷째주 토요일에 연습을 하며 넷째주 토요일 예배시에 찬양을 하게 된다.

단장은 이효종장로, 총무는 강명준 장로이며 지휘는 이본장로가, 반주는 김행미집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다.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 2006년도 전망-'총회'

총회는 지난 2002년 창립 90주년을 맞아 10년간의 장기적 정책 과제로 '생명살리기운동 10년'을 채택, 선포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교세배가운동인 '1만교회 4백만 신도운동'을 비롯하여 세계교회가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신학적 실천적 방향성들을 포괄하는 원대하고도 선도적인 정책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기구개혁의 기초 위에서 이를 실천해 내기 위한 교단 전반의 새로운 틀걸이는 '정책 총회, 사업 노회 훈련원'의 삼각구도로 제시되었고, 마침 세계선교협의회(CWM)가 회원 교회들에게 제안한 정책적 재정 지원 계획과 맞물려 이러한 변화의 행보 또한 새로운 정책에 걸맞는 기구와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전국 62개 노회들이 지역 교회들의 구심체로서, 동시에 지역 선교의 교두보로서 '사업 노회'의 본래적 기능 회복을 위해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건강성과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금년에도 역시 동일한 기초의 정책적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노회경계 위반교회들에 대해서는 신도시 지역 교회들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3년간의 한시적 특별법 적용이 이뤄지게 되며, 미자립교회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이른바 '평준화'란 용어로 인해 야기됐던 정책의 철학적 문제 제기를 수용하고 자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 보다 세부적 조정에 따른 결연과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에 대한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반 가까운 미자립교회들에 대한 자립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수년간 총회의 정책적 현안이었던 기구개혁과 생명살리기, 훈련원 기능 정상화 등의 문제는 새로운 총회 실무진들이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기구개혁 문제는 당초 시행 3년 후 평가작업을 일정에 명시한 바 있어, 금회기가 마무리되는 제91회 총회를 전후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동시

에 후속적인 조치와 함께 총회 회의 체제에 대한 기왕의 연구 성과들을 변화의 흐름 속에 접목시켜 총회 창립 2세기에도 여전히 선도적 교단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논의 구조와 체제 정비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생명살리기운동 10년은 지난해 1, 2차 선정 작업을 통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제시한 노회들 뿐 아니라 사회봉사부와 국내선교부 등 총회 정책 부서들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노회들에 결연시키는 방법으로 총 26개 노회들을 선정, 기금을 지원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로써 그간 정책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이해 문제로 인해 제기됐던 지적들 또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도 진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총회는 첫 선교사 파송 1백주년을 앞두고 세계선교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확산을 위해 전세계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을 초청, 전국 지역을 순회하는 대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차기 총회 유치를 선언한 바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오는 2월 브라질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준비 작업에도 착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본 교단 교회들이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를 비롯해 연말에 실시된 '사랑의 연탄나누기 캠페인', 아시아교회들과 함께 했던 쓰나미 구호등 구호와 나눔 사역에서도 괄목할 만한 전기를 마련했고 이러한 변화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밖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단은 지난해에 이어 대사회적인 교회의 역할에 주도적인 역할이 전망되고 있다. 이미 마무리 된 건축협정제 문제는 물론이고 지난해에서 올해로 이어진 사학법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 교단은 최선을 다해 한국교회의 여론을 결집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율 노력과 함께 때로는 철저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금년에도 역시 이러한 교단의 주도적 노력들이 교회 내적으로는 물론 대사회적으로 결연한 의지의 천명에 대한 과시를 넘어 설득력을 갖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교회와의 협력 나눔 사역에 있어서는 장기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금년 중 봉사교회의 완공이 이뤄져 조그련과의 협력에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회가 나섰다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대책 활동에 나섰다.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대표회장:김삼환 실행위원장:오정현)는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 교회가 나서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교계인사들은 '생명과 희망 선언문'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안을 갖는 것은 사회의 근간을 세우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범사회적 대안운동"이라고 전제하고, "한국교회는 그 동안 감당해 왔던 사회봉사 사역을 돌아보며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문제에 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감당해 나갈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는 △경건한 믿음의 자녀 낳기 운동 △경건한 믿음의 자녀키우기 운동 △교회홀타리 낮추기 운동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각 지역별 목회자 포럼 개최 △3백65일 영유아 성경공부 교재개발

발 △온라인을 통해 영유아 보육시설 정보 제공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범위 확대 등 7개 방향에서 활동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21세기 한국교회의 잠재적 리더 양육을 위한 영유아시설운영과 방과후 교실을 통한 맞벌이 부부의 사교육부담 감소,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한 청소년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성장시켜 건강한 한국교회 미래지도자 양성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은 오정현목사(사랑의교회)의 개회선언과 사회로 진행, 김삼환목사(명성교회)가 환영사를 통해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첫번째 축복이 오늘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출산문제 해결에 기독교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축하했으며,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김에실의원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김용익위원장 등이 격려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CTS, 성주인태내셔널, 기업은행, 아가방 등이 참여 MOT체결을 하고, 발족선언문을 발표했다.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에는 대표회장 김삼환목사를 비롯해 박종순 김선도 길자연 옥한흠 조용기 목사, 송자총장 이행자대표 정근모총장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정현목사와 감경철장로가 실행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 1만4천12명

지난 2005년 한 해에는 선교사 파송 증가세가 예년에 비해 1천여 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선교한국의 위상을 한껏 높여 준 계기가 됐다.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펼치는 선교사역에는 여전히 지역 편중화 현상과 선교인프라 구축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세계선교협의회(대표회장:박종순)가 26개 국내 주요 교단 선교부와 1백8개 선교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현재 한국교회가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의 수는 총 1만4천12명이며 이러한 수치는 예년 선교사 증가 추세 보다 1천여 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교사 파송 기관별로 살펴보면, 교단 선교부가 6천6백46명으로 전체의 47.4퍼센트를 차지했으며 선교단체가 7천3백66명으로 52.6퍼센트를 차지해 여전히 교단 파송 선교사들보다 선교단체들이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현황으로는 2년 이상 사역을 하는 장기선교사가 1만2천5백94명으로 89.9퍼센트, 2년 미만의 단기선교사가 1천4백18명으로 10.1퍼센트를 차지해 단기선교사 보다 장기선교사의 증가 추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 저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교에 헌신하는 장기선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직분별 선교사

현황에서는 목회자가 1만2천2백95명으로 전체 64.7퍼센트, 평신도가 2천9백63명으로 전체 35.3퍼센트를 차지해 목사 선교사 파송 수가 평신도 선교사 파송 수의 2배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선교사 자녀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19세 미만이 5천4백99명으로 74.5퍼센트, 20세 이상이 1천8백81명으로 25.5퍼센트를 차지했다. 파악되지 않는 단체의 자녀수를 감안한다면 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19세 미만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파송기관 및 파송교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선교사의 전략적 재배치나 사역의 확대에 있어 선교사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돼 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해 보다 1천여 명 증가한 20세 이상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대학교육 및 직업교육 등의 대책도 세워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지역별 선교사 분포를 보면,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가 4천68명으로 전체 29.3퍼센트를 차지해 한국선교사가 가장 많이 배치돼 있으며 그 증가 추세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남아시아는 2천12명으로 전체 14.5퍼센트를 차지했으며 인도를 중심한 서아시아는 7백56명으로 5.4퍼센트, 중앙아시아는 8백25명으로 5.9퍼센트, 중동은 6백23명으로 4.5퍼센트, 사하라 사막 이북의 북아프리카는 3백66명으로 2.6퍼센트,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6백97명으로 5퍼센트, 중남미는 8백63명으로 6.2퍼센트, 태평양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9백41명으로 6.8퍼센트로 나타났다. 특히 태평양 오세아니아지역은 지난해 대비 4백62명이 증가해 동아시아 다음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주 지역은 7백99명으로 5.8퍼센트, 북미주 지역은 대학생 성경읽기선교회(UBF)의 선교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럽은 1천4백22명으로 10.2퍼센트, 항공항만 등을 이용한 순회 및 비거주 선교사는 1백38명으로 1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교사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00년 세계선교대회 이후 한국선교사의 전략적 재배치 결의에 의해 여러 파송기관이 이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사를 미전도종족으로 파송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파악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선교사 수의 증가가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결과를 보임으로써 일본과 중국으로 선교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 수는 1천8백14명으로 전체 선교사 수의 13퍼센트에 불과해 이슬람 지역으로의 선교사 파송이 더욱 집중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서 통곡 기도회 연다

지난 2005년 한해동안 북미 12개 지역을 순회하며 통곡기도대회를 가진 바 있는 북한자유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KCC 대표간사:손인식)이 오는 2월 28일, 3월 1일 양일간 서울 영락교회에서 굶주리고 학대 받는 북한 동족과 탈북자를 위한 '서울 통곡 기도 대회'(준비위원장:김윤태)를 갖는다.

28일 목회자와 3월 1일 목회자와 평신도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회복될 것'과 '중국 정부가 더 이상 탈북자들을 색출과 복송을 중단할 것', '북한의 강제 수용소와 갇힌자들의 풀어주고 수용소를 폐쇄할 것',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할 것' 등을 제목으로 기도할 예정이다.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KCC대표간사 손인식목사는 "영락교회에서 해외 1천명이상 국내 5천명이상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희망하며 초청한다"면서 "공산당을 피하여 월남한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대표적 교회인 서울 영락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손 목사는 "지금의 위기는 국내와 국회의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고 말했다.

이 기동운동은 서울통곡기도대회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에서의 기도회와 파리 쌍파울로 시드니 도쿄 파테말아시아 등을 순회하는 대회를 가진 후 평양에서 감사 통곡기도대회를 가질 것을 구상하고 있다 밝혔다.

성경,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된다

위클리프宣 2038년까지 2천5백여개에 언어 성서

번역 착수



성경번역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 위클리프선교회 존 와터스총재는 "현재 속도라면 2038년까지 성경번역이 필요한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 사역이 착수될 수 있다"고 지난 연말 밝혔다. 현재 성경번역이 필요한 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2천5백29개에 달하며, 이 사역을 위해 국제 위클리프선교회와 한국GBT, 위클리프 일본 등 성경번역 단체들은 지난 99년 '비전2025'를 선포하고 2025년까지 2천5백여개에 달하는 미번역 언어 성경번역 사역을 착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전2025를 선포하기 전에는 2150년이 돼야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착수할 수 있었으나 비전 선포 이후 기간이 1백여 년 앞장겨진 셈이다.

존 와터스총재의 지적에 대해 한국GBT(대표:권성찬)의 한 관계자는 "존 와터스총재는 일단 비전 선포로 인해 성경번역이 상당히 앞장겨진 것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며, 반면 2038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는 것은 성경번역 선교사들을 독려해 목표한 202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위클리프선교회 등 성경번역 단체들은 비전2025를 선포하면서 각 단체에 소속된 번역 선교사들과 번역 노하우, 전략 등을 공유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현재 전 세계에는 6천9백12개의 언어가 있으며, 이중 2천5백29개 언어가 성경번역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99년 비전2025가 선포된 이후 지금까지

지 모두 4백73개 언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됐으며, 여기에는 7천명 가까운 선교사들과 1만2천여 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 "개정 사학법 재개정 하라"

본교단을 비롯해 범교계적으로 참여한 '사학수호를 위한 비상기도회'가 지난 19일 영락교회(이철신목사 시무)에서 열려 사학법 개정에 대한 교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특히 이번 기도회는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 오던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개정 사학법 재개정'으로 입장을 변경하는 계기가 됐으며, 찬반으로 나누어져 입장을 달리했던 교계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됐다.

본교단 총회장 안영로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는 이재완목사(기성 총회장)의 기도와 김선도목사(광림교회 원로목사)의 설교에 이어 황승기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축도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구국선언문 발표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었다.

교단장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이번 사학법개정 논쟁을 통해 기독교 사학이 더욱 자정능력을 배양하고 건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자성과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성명서는 "우리는 정부의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육의 장래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크므로 반드시 '재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학법 개정이 국가의 직접적 간섭을 크게 강화시켜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손상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사학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 북존우물기

2006년 2월호 · 통권 제156호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박 병 옥

편집인: (교회소식) 구희숙

(교계소식) 이성철

발행일: 2006년 2월 5일